

SPECIAL THEME

바이러스가 바뀌 놓은  
경제  
P.04

THE NEW KOREA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현황 및 전망  
P.30

GLOBAL BIZ FOCUS

기회의 땅 '미얀마' 진출  
이것만은 알아 두자  
P.42

POLICAST

창업·벤처기업의  
금융 조달, 이제는  
실리콘밸리 방식으로  
P.44

2021. January+February. Vol\_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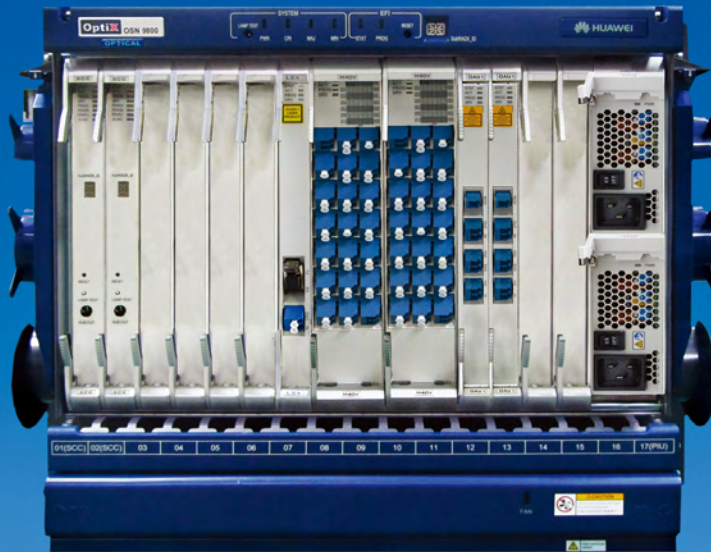
#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대한민국 유일의 중소기업 CEO를 위한 경제·경영 전문지

이달의 CEO

정찬원 씨스존(주) 대표

## IT 접목으로 새로운 혁신 시장을 열다



### OptiX OSN9800 UPS Platform

최대 400G 채널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중단 간 OTN/WDM 백본 전송을 지원.

# CONTENTS

2021. January+February. Vol\_191

**시론** ..... 01  
 브이노믹스 시대, 디지털 혁신이 경쟁력이다

**Topic** ..... 02  
 BIZ & Economy Topic

## Special Theme 04

바이러스가 바꿔 놓은 경제

- ① 'V자' 경제 회복을 그릴 수 있나? 2021년 경제 전망
- ② 2021 미들택트 시대의 비즈니스 전략
- ③ 2021년 브이노믹스는 '3R'로 통한다



**Cover Story** ..... 16  
 정찬원 씨스존(주) 대표  
 IT접목으로 새로운 혁신 시장을 열다

## 신년 특집 기획 22

신년 특집 기획 ①  
 코로나19발 2021년 세계 경제 전망 안갯속

신년 특집 기획 ②  
 2021년 하반기 경기 회복세

신년 특집 기획 ③  
 2021년 재택근무는 코로나19가 끝나도 지속될까



30  
**The New Korea**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현황 및 전망



34  
**Case Study**  
 기본을 망각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 Start-up 36



- IBK창업인 ① (주)메디아애플러스
- IBK창업인 ② (주)브로나인
- IBK창업인 ③ (주)기원테크
- IBK창업인 ④ (주)제이케이테크

**BIZ Lecture** ..... 40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어떻게 해야 할까?

**Global BIZ Focus** ..... 42

기회의 땅 '미얀마' 진출 이것만은 알아 두자

**Policast** ..... 44

창업·벤처기업의 금융 조달, 이제는 실리콘밸리 방식으로

**Economic Review** ..... 46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Digital & BIZ** ..... 5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택 아닌 필수

**Company Issue** ..... 52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적용,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Staff Training** ..... 54

당신의 직원들은 일에 몰입하나요?

**Tax Focus** ..... 56

2021년 바뀌는 세제, 기업인들이 알아야 할 세무

**CEO Essay** ..... 58

스타트업의 딜레마, 성장성과 수익성

**CEO Dictionary** ..... 60

이번 호에 소개된 경제 용어

# 기회의 땅 '미얀마' 진출 이것만은 알아 두자

현재 각 기업들이 미얀마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금융권 진출을 시작으로 미얀마의 문을 적극 두드리고 있다. 기회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얀마. 그곳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진출 현황부터 진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 진출한 후 애로사항 등을 알아본다.

PHOTO 한정DB

## 미얀마 과거 vs 현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미얀마는 약 5,390만 명의 인구와 67만6,578km<sup>2</sup>(한반도의 약 3.5배, 남한의 약 6배)의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미얀마는 1886년 영국령 인도로 편입되면서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이후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군사독재의 길을 걷게 되며, 인권 탄압의 상황 등으로 미국과 EU 등 서방 세계는 미얀마에 경제 제

재를 가했고 1990~2010년 초까지 고립된 경제 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1년 치러진 총선 및 대선으로 떼인 세인 대통령이 취임 하면서 일련의 개혁 정책을 진행하는 등 경제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그 이후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이 해제되고,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 힘입어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 정당은 2016년 치러진 총선과 대선에서 다수당이 되었고, 2020년 선거에서도 승리했다. 현재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는 일부 개인을 향한 제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라진 상황이다. 다만 로힝야족 사태 등으로 인해 여전히 서방 국가로부터 인권과 관련한 개선을 요구 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사업별 미얀마 투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풍부한 노동력 및 미개척 시장에 대한 사업 기회로 많은 기업들이 미얀마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각 사업별



**IBK기업은행, 미얀마 진출 기업 투자설명회** IBK기업은행 2020년 12월 30일 미얀마 중앙은행으로부터 현지법인 설립 최종 인가를 받았다고 1월 3일 밝혔다. 현지법인 설립 최종 인가를 획득한 'IBK미얀마' 은행 본점 앞에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 미얀마 투자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제조업의 경우 한국계 회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분야는 봉제업<sup>CMP</sup>, 시멘트, 전선, 식음료 등이다. 대부분의 제조업 관련 투자는 경쟁력 있는 임금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얀마 경제 수도인 양곤 외곽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sup>LH</sup>에서 주도하는 산업단지<sup>Korea Myanmar Industrial Complex</sup>의 분양도 시작되어 제조업 관련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의 경우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거나 합작회사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종의 영위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법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업의 경우 크게 상업은행과 소액대출 금융기관<sup>Microfinance Institution</sup>에 외국인이 100%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1년 현재 IBK기업은행을 포함해 총 4개의 시중은행이 미얀마에 진출해 있다. 이외에도 시공, 컨설팅, IT, 인테리어, 물류, 레스토랑 등 서비스업의 진출이 활발하다. 미얀마 서비스업 진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100%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얀마투자기업관리국<sup>DMICA</sup>에 일반 외국 법인으로 설립해 회사를 운영하며, 최소자본금 요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미얀마에 투자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토지와 관련된 이슈다. 미얀마는 상대적으로 토지제도가 미비해 토지 지목을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 Tip. 미얀마 진출 시 알아 두어야 할 주요 정보   |   |
|--|---|
| 질 의  | 주요 정보   |
|  최소자본금  | 없음(단, 일부 규제 업종 및 '미얀마 투자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는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노동     | 고용과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나 (사유 없이) 해고 시에는 해고보상금 지급 강제                               |
|  최저임금   |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및 가족기업 제외 모든 기업 적용<br>월 15만 짜트(약 13만 원)<br>2021년 인상 논의 예상됨     |
|  조세     | 법인세: 25%<br>개인소득세: 누진세 적용, 최대 25%<br>상업세(한국의 부가세와 유사한 개념): 5%<br>원천징수세, 인지세 등 |
|  과실송금   | 가능  |
|  대출     | 가능(단, 경우에 따라 담보 제공 필요)  |
|  투자자 보호 | '미얀마 투자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보호  |

체계적인 방식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등기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실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외국인(외국 회사 포함)은 '부동산 양수도 제한법'에 따라 미얀마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최대한 부동산에 대해 보유할 수 있는 권리는 1년 임차로 제한된다. 따라서 대규모 설비투자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미얀마 투자법' 등 외국인(외국 회사 포함)에게 장기토지임차권을 허용해 주는 특별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투자해 장기토지임차권을 확보해야 한다.

미얀마는 아직까지 기업 투자와 관련된 제도나 환경이 미비한 부분이 있고 법률과 실무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미얀마에 투자를 고려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안전한 투자 방법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규창**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지사 외국변호사  
2012년 워싱턴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사업부에서 라이선싱, 외주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지평 미얀마팀에 소속되어 해외자문 업무를 수행한다.